



아시아리뷰
제16권 제1호(통권 36호), 2026

자유주제

www.kci.go.kr

이쿠파(忆苦饭)과 기억의 정치: ‘고난의 기억’을 먹는 중국인*

박충환**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부교수

이 글은 중국의 “이쿠파(忆苦饭)”, 즉 ‘고난의 과거를 회상하는 밥’이라는 매우 독특한 음식 범주의 역사적·문화적·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이다. 이쿠파는 개혁개방 이전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 중국인들의 일상을 지배하던 “이쿠스티엔(忆苦思甜)” 정치집회의 막간이나 마무리 단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던 맛없고 거친 음식으로 의미심장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했다. 이 고도로 정치화된 음식은 모택동 체제의 종언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개혁개방 후 시장사회의 중국에서 음식상품의 형태로 새롭게 부상해서 소비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음식과 집단기억의 맞물림을 전제로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과 개혁개방 후 중국에서 이쿠파가 갖는 중층적 함의를 기억의 정치라는 개념하에서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이쿠파를 이쿠스티엔 집회의 맥락에서 들여다봄으로써 이 음식이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 중국의 대중을 사회주의적 주체로 호명하는 데 기여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일부였음을 밝힌다. 둘째, 개혁개방 후 중국에서 음식상품의 형태로 새롭게 출현한 이쿠파를 노스탤지어와 기억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중국의 체제와 중국인들이 가까운 과거와 관계 맺는 방식에 내재하는 이율배반과 양면성을 드러내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조명한다.

주제어 이쿠파, 이쿠스티엔, 기억의 정치, 사회주의적 주체, 노스탤지어

I. 들어가며

마르셀 프루스트의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주인공 마르셀이 우연히 흥차에 적신 마들렌을 한 입 베어 물며 불현듯 떠올리는 유년기에 대한 회상으로 그 장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연다. 음식과 기억이 교차하는 순간을 섬세한 문학적 감수성으로 포착한 이 장면은 “마들렌 효과”, “프루스트 효과”, “프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Park, 2008) 4장의 일부를 지난 20년에 걸쳐 수행해 온 중국 현장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단독 연구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유용한 심사평을 통해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신 두 심사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parkhanam@knu.ac.kr

루스트 기억” 등으로 불리며 특정한 음식의 맛과 향이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는 심리적 정동의 대명사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프랑스를 살았던 프루스트에게 고소한 버터 향과 달콤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마들렌이 있어버린 유년기 기억의 마중물이었다면, 오늘날 중국에서는 투박하고 맛없으며 거친 질감의 “이쿠판(忆苦饭)”, 즉 ‘고난의 과거를 회상하는 밥’이 대중들 사이에서 개혁개방 이전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을 회상케 하는 음식으로 흥미로운 마들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글은 당대 중국 음식의 우주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쿠판에 초점을 맞추어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과 개혁개방 후 중국 사회에서 음식과 기억이 맞물리는 장을 조명하는 연구이다.

이쿠판은 과거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 특히 문화혁명 당시 중국인들의 일상을 지배하던 대중집회이자 정치적 의례였던 “이쿠스티엔(忆苦思甜)” 집회의 막간이나 마무리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던 거칠고 맛있는 음식에서 유래했다. 이쿠판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연원으로 인해 그 맛, 향, 질감이 미식의 대척점에 있는 거칠고 투박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이란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 음식을 요리하고 시식하는 활동이 각급 학교나 정부 기관에서 이른바 “애국주의 교육”(공봉진, 2019)¹의 일환으로 조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도시 중산층들 사이에서는 이 음식이 친환경 녹색식품 혹은 건강 다이어트식품으로 소비되고 있기도 하다(Sohu, 2023/10/20).² 심지어 이쿠판은 최근 ‘핀슈머(funsumer)’³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일부 MZ 세대들 사이에서 유희적 소비의 대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음식은 단순히 맛과 향 그리고 영양분을 담고 있는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그것의 생산, 가공, 소비가 사회적·문화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다의적이고 복잡한

1 중국 정부와 공산당 지도부는 개혁개방 후 사회통합 이데올로기의 부재로 인한 위기를 인식하고 1994년 「애국주의교육실시강요(爱国主义教育实施纲要)라는 정책 문건을 발표하고 청년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애를 함양하기 위한 애국주의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봉진(2019)의 연구 참조.

2 “忆苦思甜饭不仅是一道挺有意义的食物，经常吃对身体也不错！” https://www.sohu.com/a/729864103_121728927(검색일: 2025. 5. 3.).

3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합성한 신조어로 소비하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찾는 소비자를 뜻한다.

물질적·상징적·제도적 배치이다. 또한 음식의 요리와 먹는 행위는 섹슈얼리티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사적이고 동시에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개별 행위자가 물질적 세계 및 사회적 우주와 관계 맺고 소통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긴밀한 매개체이다(Ashley et al., 2004; Counihan·Esterik, 1997; Mintz·Du Bois, 2002; Mohan, 2023). 특히 음식은 그 맛과 향 그리고 질감으로 인해 특별한 감각적 경험 혹은 “감각성(sensuality)”(Sutton, 2001)을 수반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에게 강력한 기억의 매개체로 작용해서 이른바 “신체적 기억(bodily memory)”(Connerton, 1989) 혹은 “체화된 기억(embodied memory)”(Stoller, 1995)을 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음식 경험은 단순히 인지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기도 한 회상을 불러일으키고, ... 강력한 신체적 기억의 구성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Holtzman, 2006: 365). 하지만 이렇게 체화된 기억의 매개체로서 음식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억을 구성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음식의 생산과 소비 과정은 밀도 높은 사회적 과정 혹은 “고도로 응축된 사회적 사실(highly condensed social fact)”(Appadurai, 1981: 494)로서 상황에 따라 사회적 신체의 기억 혹은 알박스(Halbwachs, 1992)가 말하는 “집단기억”의 매개체로도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음식이 수반하는 신체적 기억의 사회적·집단적 차원은 특정 사회에서 과거의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치적 경합, 즉 ‘기억의 정치’와 의미심장하게 연동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음식과 집단기억의 맞물림을 전제로 중국 현대사를 두 시기, 즉 1978년 개혁개방 이전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과 개혁개방 이후 시장사회주의 시절로 구분해서, 이쿠파가 각 시기의 정치적·문화적 경관에서 갖는 함의를 기억의 정치라는 개념하에서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쿠파가 기원한 구체적인 역사적 장, 즉 이쿠스티엔 집회를 사회주의 혁명 과정과 모택동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형 속에서 들여다보고, 당시 이쿠파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를 사회주의적 주체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스텔지어 조류가 하나의 뚜렷한 문화현상으로 부상한 개혁개방 후 시장사회주의 중국에서 이쿠파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작동하는 새로운 기억의 정치를 조명함으로써 이에 투사된 문화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함의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쿠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담론과 실천을 기

역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조명하는 작업은 오늘날 중국의 체제와 중국인들이 가까운 과거와 관계 맺는 방식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연구가 될 것이다.

필자가 중국에서 이쿠파이라는 음식 범주를 처음 인지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약 14개월 동안 북경시 근교 한 농촌 마을에서 농자리(农家乐) 농촌관광에 대한 장기적이고 밀도 높은 현장연구를 수행할 당시였다. 농자리 관광은 농자위엔(农家院)이라는 농촌적 공간과 농자판(农家饭)이라는 중국판 ‘시골밥’을 관광 경험의 두 축으로 하는 농촌관광산업으로 199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도시 중산층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인기를 끌고 있다(Park, 2008). 필자는 한 선행 연구를 통해 농자리 관광의 장에서 생산·소비되는 농자판 음식의 문화적 다의성을 개혁개방 후 중국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과 도농 정체성 정치 그리고 권력의 성격 변화라는 측면에서 조명한 바 있다(박충환, 2025a). 이 글은 선행 연구에서 지면의 한계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이쿠파에 초점을 맞추어 음식과 집단기억의 교차를 당대 중국의 역사적·정치적·문화적 맥락에서 탐색하는 일종의 후속 연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이쿠파 관련 문화기술지 자료는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로 북경시 회유구(怀柔区) 안서진(雁栖镇)의 안서계곡을 중심으로 수집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의 논의가 시공간적으로 최근 안서계곡 농자리 관광의 장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지난 20여 년에 걸쳐 중국 북부, 남부, 내륙 지방까지 아우르는 각처에서 수행해 온 인류학적 현장연구, 문헌조사,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해 이쿠파의 역사적 궤적과 최근 동향을 추적함으로써, 이 독특한 음식을 둘러싼 실천과 담론을 중국 현대사의 큰 흐름과 개혁개방 후 중국 사회의 변화한 물질적·상징적 질서라는 거시적 맥락 속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 글의 이쿠파 관련 논의는 시간적으로 사회주의 혁명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안서계곡을 넘어 중국 대륙 전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쿠파, 이쿠파스티엔, 그리고 사회주의적 주체의 탄생

이쿠파는 ‘고난의 과거를 회상하는 밥’, ‘고통의 과거를 기억하는 밥’, 혹은 ‘과

거의 고통스러운 삶을 회상하는 밥’이라는 뜻으로, 이름 자체를 통해 이 음식이 과거의 고난에 대한 기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에게 이 독특한 역사적·정치적 함의를 가진 음식 범주의 존재는 북경시 근교 안서계곡 농자러 관광의 장에서 처음으로 인지되었다. 안서계곡을 찾는 농자러 관광객들은 주로 농가민박과 주변의 농촌적 환경이 제공하는 목가적 분위기 속에서 건강과 양생에 좋은 음식으로 인식되는 중국판 시골밥, 즉 농자판 연회를 즐기는 형태로 관광을 경험한다. 흥미롭게도 이들 관광객 중 1978년 개혁개방 이전에 태어난 대다수 중장년층과 노년층 고객들이 농자판 연회 테이블에 올려진 티에빙(贴饼)⁴이나 차이투안쯔(菜团子)⁵ 같은 특정 요리를 두고 이쿠파와 이쿠스티엔 집회⁶를 언급하며 과거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이쿠파가 개혁개방 이전 사회주의 시절 중국인들의 일상을 지배하던 정치적 집회이자 의례였던 이쿠스티엔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던 투박하고 맛있는 음식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이쿠파는 거친 질감, 맛없음, 투박함 그리고 가난한 농민(혹은 노동자)의 먹거리라는 계급성을 그 근본 속성으로 하는 음식 범주로 안서계곡을 넘어 중국 대륙 전역에 걸쳐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이쿠파를 그것이 기원한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 이쿠스티엔 집회의 맥락에서 들여다봄으로써 이 독특하게 정치화된 음식의 역사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사회주의적 주체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쿠스티엔은 문자 그대로 ‘고난을 회상하고 달콤함을 상기한다’는 뜻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이를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전, 즉 중국식 표현으로 “지에팡 이치엔(解放以前, 이하 해방 이전)” 구체제하에서 중국 인민들이 겪었던 고난의 세월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지에팡 이호

4 일종의 옥수수 떡으로 위미빙(玉米饼) 혹은 파빙쯔(大饼子)로도 불린다.

5 야채옥수수 찌뽕. 이쿠파으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음식 항목은 지역과 종족적 배경에 따라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만 채취되는 특정한 산나물 같은 식재료 혹은 단순하게 삶은 고구마나 옥수수를 보고 이쿠파를 떠올리기도 한다.

6 이쿠스티엔대회(忆苦思甜大会), 이쿠대회(忆苦大会), 텅쿠대회(听苦大会)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우(解放以后, 이하 해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행복한 삶을 재확인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쿠스티엔 집회는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 특히 문화혁명기 중국인들의 일상을 지배했던 극좌파 대중 정치운동의 핵심 축으로서 해방 이전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타자화함으로써 해방 이후 현 사회주의 체제를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했다. 이 독특한 서사구조를 가진 정치적 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천재적인 전략가에 의해 고안된 것이 아니었다. 이쿠스티엔은 해방 이전인 1930년대 전후부터 홍군(红军)이 점령한 “지에팡취(解放区, 이하 해방구)”⁷에서 지역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조직한 “수구대회(诉苦大會)”, 즉 ‘고난에 대해 말하기 집회’에서 진화한 정치적 대중집회의 한 형태이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7월 상해에서 비밀리에 개최한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창립되었다. 이 공산당 창립대회에 참석한 중국인 대표는 모두 13명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대표한 전체 공산당원 수는 고작 5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미미하기 짝이 없는 세력으로 출범한 중국 공산당은 창립한 지 단 28년 만에 당시 인구 규모 면에서 지구상 가장 큰 정치체를 대상으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고 1949년 10월 1일 강력한 국가사회주의 체제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할 수 있었다. 중국 공산당의 성공적 혁명은 한편으로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의 만연한 부패와 실정 그리고 그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과 민심 이탈, 다른 한편으로 공산당의 유연한 전략과 전술, 풀뿌리 사회개혁, 공산당에 대한 농민의 자발적 지지, 계층과 계급을 초월한 연대,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등 수많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이희욱·백승욱, 2021; 조차현·나태중, 2011; Johnson, 1962; Meisner, 1999). 하지만 이들 원인 중에서 대다수 연구자가 주목하는 혁명의 가장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공산당이 당시 중국 인구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던 농민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국민당과의 내전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해방구 지역 농민들의 지지와 자

⁷ 국공내전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의 군대인 홍군(1947년 ‘인민해방군’으로 개명)이 점령한 지역을 ‘지에팡취’라 불렀다.

발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회주의적 토지개혁, 즉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재분배하는 급진적인 제도적 개혁을 실행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적 토지개혁운동이 지역 농민들의 광범위한 지지하에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광활한 대륙의 지리적·사회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사회주의적 토지개혁에 이론적·실천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계급적 착취관계와 계급적대가 뚜렷하지 않거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지역민의 '도덕경제'와 문화적 의미체계 내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宋道雷, 2010: 52-53; Guo Wu, 2014a: 5-6). 예를 들어, 토지개혁 당시 출판된 한 기록에 따르면, 산둥성(山东省) 추평현(邹平县)에는 농가의 90% 이상이 토지를 소유한 자작농이었고, 허북성(河北省) 정현(定县)⁸ 육삼촌(六三村)의 경우 전체 8,062가구 중 토지 없는 전호(佃戶), 즉 소작농 가구는 5%에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梁漱溟, 2011: 130-131). 최근 역사학자들의 연구 또한 1930~40년대 허북성 중부 지역 대부분의 촌락에는 대지주가 아예 없었고, 농민 대다수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경작하면서 필요에 따라 크고 작은 토지를 임차해서 소작하는 '자작 겸 소작농'이었음을 보여준다(Friedman et al., 1991). 다른 한편으로, 수천 년 동안 가부장제 가족과 부계 종족적 질서하에서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숙명론적 세계관을 내면화해 온 농민 대중이 당시 중국의 촌락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던 전통적인 위계와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회주의적 토지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토지 소유관계의 지역적 변이와 농촌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구성에서 비롯된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 공산당은 한편으로 급진적인 제도개혁을 실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마음의 혁명(revolution of mind)” 혹은 “이데올로기적 변환(ideological transformation)”을 통한 농민 대중의 ‘재교육’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Guo Wu, 2014a: 8). 이러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필요성에서 중국 공산당이 고안하고 조직하기 시작한 대중집회가 바로 수쿠집회였다(宋道雷, 2010). 정치적 지도자와 엘리트가 주로 연단에서 발언하고 대다수 참가자는 그들의 연설을 수동적으로 듣

⁸ 현재의 정주시(定州市).

는 형태로 조직되는 일반적인 정치집회와 달리, 수쿠대회는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직접 연단으로 나와 청중 앞에서 자신의 생애에 관해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수쿠집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대중 앞에서 지주의 착취와 폭력으로 인해 배고프고 힘들었던 과거의 경험을 계급갈등과 계급적대라는 사회주의 혁명의 언어로 발언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해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던 불만을 개념적 언어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수쿠집회는 농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애에 관해 적극적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각 혹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종의 계몽적 대중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판심회(翻心會)”, 즉 ‘마음 바꾸기 모임’으로 불리기도 했다(Guo Wu, 2014a: 8).

중국 공산당은 수쿠집회의 서사전략을 조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당시 중국인의 대중심리에 잠재하고 있던 일반적 불만족을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간 긴장과 갈등이라는 혁명의 언어로 개념화하고 이를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대중의 계급의식을 일깨우고자 했다(李里峰, 2007; 宋道雷, 2010; Anagnost, 1997; Guo Wu, 2014a; 2014b). 따라서 수쿠집회는 마르크스가 “포대 속의 감자(potatoes in a sack)”라고 묘사했던 농민, 즉 기존 질서에 순응하고 변화에 소극적이며 정치적 자기조직 능력을 결여한 농민 대중을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사회주의 혁명 주체로 호명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기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애너그노스트(Anagnost, 1997: 17)는 국공내전 당시 중국인들이 대중집회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연행한 수쿠, 즉 구사회에서 겪은 “고난에 대해 말하기(speaking bitterness)”가 사회주의적 주체의 형성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봉건전제군주 체제와 국민당 치하에서 중국 농민들이 겪었던 고난의 세월에 대해 ‘수쿠’, 즉 말하게 하는 데 방점을 둔 수쿠집회는 해방 이후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쿠(忆苦)’, 즉 해방 이전 고난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현재를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데 방점을 둔 이쿠스티엔 집회로 진화하게 된다. 수쿠집회가 이쿠스티엔 집회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고난에 대해 말하기와 기억하기에 더해 해방 이전 구체제하에서 가난한 농민이나 노동자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었다고 여겨지는 맛없고 거칠고 투박한 음식, 즉 이쿠판을 준비해서 집회 참가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식사 의례가 연행되기 시작했다.⁹ 이쿠스티엔 집회의 막간이나 마

무리 단계를 장식한 이쿠파의 공동식사 의례는 말하기를 통해 회상되는 고통의 기억을 음식의 맛, 향, 질감을 통해 호출되는 체화된 기억으로 전환함으로써 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환기효과를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쿠파는 중국 농민들이 해방 이전 구사회에서 식량 부족과 배고픔으로 인해 경험했던 고난의 삶에 대한 기억을 신체적 기억의 형태로 호출하는 강력한 기억의 ‘인출단서(retrieval cue)’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진화한 이쿠파는 집회는 말하기와 먹기를 통해 해방 이전 과거에 경험했던 고난의 기억을 호출하고, 그렇게 호출된 고난의 과거를 부정적인 거울로 삼아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혁명과 개혁운동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작동했다.

모택동 사회주의 체제는 혁명이 성공한 해방 이후에도 중국 농민들이 해방 이전 구사회에서 겪었던 굶주림과 배고픔에 대한 기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치 캠페인과 대중집회를 통해 현 체제를 정당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고자 했다(李里峰, 2007; 乔志峰, 2012). 이러한 측면에서 위에강(Yue Gang)은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배고픔의 혁명”이라 지칭하며 일상이 고도로 정치화되었던 모택동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심지어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공산당이 주도한 혁명을 배고픔의 혁명으로 묘사할 수 있다면, 혁명 대중은 바로 물리적이면서도 상징적인 혁명적 배고픔을 통해 동기화되었음이 분명하다. ... 공산당과 국가장치는 사회적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계급투쟁의 한정적 의미를 통해 주조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음식의 소비 행위 자체가 미리 규정된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내포한 정치적 행위로 전환되었다(Yue Gang, 1999: 146).

이쿠파는 이렇게 음식 경험 자체가 “미리 규정된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내포한 정치적 행위”로 구성되었던 모택동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해방 이전 구사회

⁹ 이쿠파 공동식사 의례가 이쿠파스티엔 집회에 포함된 것은 아마도 농민들이 과거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발언할 때 가장 흔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은유가 바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 고통 중 하나인 배고픔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 가난한 농민이나 노동자가 먹었던 혹은 먹었다고 여겨지는 맛없고, 거칠며, 소화하기 힘든 식재료를 사용해서 요리했던 음식이다(Yue Gang, 1999; Guo Wu, 2014b). 흥미롭게도 이쿠스티엔 집회의 조직자들은 집회의 이데올로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쿠 서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쿠판의 맛없음과 거칠음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거나 극화하기도 했다. 이쿠판이 거칠고, 맛없고, 투박할수록 그것을 통해 감각적으로 호출되는 과거의 부정성이 더 강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2018년 여름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 근교의 한 농자리 관광지에서 만나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던 중국인 후(胡) 씨(2025년 현재 79세)는 이쿠판의 맛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아이고 말도 마라! 그 당시를 떠올리면 쓴웃음밖에 안 나온다.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이쿠스티엔에 참석해야 했다. 집회가 시작되면 간부들이 참석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연단으로 불러내어 힘들고 배고팠던 과거에 대해 말하게 하고 청중들은 그에 뜨겁게 동조하거나 동조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 ... 정말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수쿠를 하면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면 뭔가 해소되는 느낌도 들었고, 더 열심히 사회주의 혁명 과업에 참여해야겠다는 각오도 새롭게 생겼다. ... 집회가 끝날 때가 되면 준비한 이쿠판을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맛이 없고 거칠어서 먹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도 이쿠판을 더 맛있게 하려고 간부들이 나뭇잎, 거친 잎채소, 겨, 심지어 진흙을 섞어서 요리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는 모두 약간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 맛은 죽어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죽어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맛없음과 거칠음이 과장되고 극화되었던 이쿠판은 구사회 농민 대중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기억을 호출하는 강력한 신체 감각적 기제로 작용했다. 대중집회 참가자들이 구사회의 고난에 대해 말하고 이쿠판을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식사 의례는 과거의 배고픔과 고난에 대한 개인의 신체화된 기억을 집단적 신체의 기억, 즉 집단기억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쿠스티엔 집회의 이데올로기 효과를 극대화했을 것이다. 이쿠스티엔 집회와 그 서사 전략이 당시 중국 대중들에게 발휘한 강력한 이데올로기 효과는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을 살았던 수많은 중국인의 회고록이나 전기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



그림 1 이쿠스티엔 집회에서 웅변 중인 레이펑¹⁰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인이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혁명 영웅 레이펑(雷锋)의 생애다.

레이펑은 1940년 호남성(湖南省) 장사(长沙)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국공내전과 중일전쟁이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일찍이 부모형제를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배고프고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 불운한 유년기에도 불구하고 밝고 적극적인 청년으로 성장한 레이펑은 1957년 공산주의청년단(이하 공청단)에 입단해서 각처의 농장과 공장을 돌며 열정적이고 모범적인 농민이자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1960년에는 인민해방군에 자원입대 후 한 수송부대에 배속되어 모범적인 군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레이펑은 1962년 부대 영내에서 후진하는 트럭의 뒤를 봐주다가 불의의 사고로 22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된다. 생전에 공청단 활동과 군생활을 통해 모범농민, 모범노동자, 모범군인으로 지역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던 레이펑이 근무 중 갑자기

¹⁰ https://www.qdlhc.edu.cn/leifeng/p_detail.aspx?id=51239(검색일: 2024. 10. 2.).

사망하자 소속 군당국은 그의 생애를 모범 사례로 중앙에 보고하게 된다. 우연히 이 보고서를 접한 모택동이 1963년 “레이펑의 모범을 배우자(学习雷锋好榜样)”라는 유명한 슬로건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레이펑 배우기 열풍이 일어났고, 그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모범 인물로 부상한다. 그 후 문화혁명기에 접어들어 이 슬로건이 각종 매체와 교과서에까지 인용되면서 레이펑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혁명영웅으로 우상화되어 모택동 사회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혁명적 페르소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师永刚·刘琼雄, 2006).

레이펑은 사회주의 중국의 다른 영웅들처럼 국공내전이나 항일전쟁에 참전해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거나 당 간부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적이 없는 상대적으로 평범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주의 혁명영웅으로 우상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생전에 근면, 충직, 이타성, 소박, 금욕, 절약 등 당시 모택동 사회주의 체제가 선전하던 도덕적 가치를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실천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전기를 비롯한 수많은 기록물에 따르면, 레이펑이 영웅적 인물로 부상하는 데 이쿠스티엔 집회가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난다(师永刚·刘琼雄, 2006: 170-189). 레이펑은 해방 이전 구사회에서 배고프고 힘든 유년기를 보냈고, 해방 이후에는 모택동 사회주의 체제가 선전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해서 열정적으로 실천한 인물로서 그의 생애 자체가 이쿠스티엔의 서사를 구성하기에 매우 적합했다. 또한 레이펑은 이쿠스티엔 집회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의 생애사를 극적으로 발언하는 데 필요한 웅변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 즉 레이펑은 이쿠스티엔 집회에서 적극적인 말하기를 통해 사회주의적 주체로 호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쿠스티엔 집회에서 보여준 탁월한 웅변력을 통해 다른 중국인을 사회주의적 주체로 호명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그의 때 이른 비극적 죽음은 체제의 선전을 위한 영웅서사를 구성하는 데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레이펑의 생애를 통해 드러나는 바와 같이,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 중국에서 과거의 배고픔과 고난의 기억을 활용한 이쿠스티엔 집회와 그 서사 전략은 신중국, 즉 해방 이후 사회주의 중국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인민대중의 계급투쟁 열정을 고양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주의적 주체로 호명하는 이데올로기적 국

가장치였다(Anagnost, 1997; 李里峰, 2007). 이쿠파는 바로 이러한 이쿠스티엔 집회에서 신체화 기억의 매개체로 작용함으로써 집회의 이데올로기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쿠스티엔 집회로 대표되는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의 대중동원 정치는 195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이 추진한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쓰고, 말하고, 극화하는 문화운동”의 일부로서 해방 이전 “구사회의 비참함과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정통성에 관해 사회주의 중국의 인민들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Guo Wu, 2014b: 266).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고난의 기억을 말하고 이쿠파의 공동식사를 통해 과거의 고단한 삶에 관한 체화된 기억을 집단기억으로 공유하는 극좌파 문화운동의 다양한 형태와 그것을 통해 작동하던 기억의 정치는 모택동 사회주의 시대의 종언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된다.

III. 노스텔지어와 기억의 정치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 이쿠스티엔 집회에서 해방 이전 구체제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기억을 신체화된 기억의 형태로 호출하던 이쿠파는 1976년 모택동의 사망 그리고 1978년 시장지향적 개혁개방과 함께 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소진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쿠파는 개혁개방 후 시장사회주의 중국의 변화한 물질적·상징적 질서하에서 음식상품의 형태로 새롭게 부활해서 개혁개방 이전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의 기억을 호출하는 의미심장한 마들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과거 사회주의 시절 요리되었던 맛없고 거친 질감의 이쿠파와 달리, 개혁개방 후 자본주의적 시장관계를 통해 새롭게 출현한 이쿠파는 건강과 양생에 좋고 맛도 좋은 친환경 다이어트 식품으로 생산·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새로운 이쿠파의 생산과 소비가 순전히 탈정치적이거나 비정치적인 과정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장에서는 개혁개방 후 자본주의적 음식상품의 형태로 생산·소비되고 있는 이쿠파와 이를 통해 호출되는 사회주의적 과거를 노스텔지어와 기억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조명함으로써 개혁개방 후 중국의 체제와 중국인들이 가까운 과거와 관계 맺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갖는 정치적·문화

적·이데올로기적 함의를 포착하고자 한다.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새롭게 부활한 이쿠판은 주로 농자리 관광의 장, 특히 농자관의 생산과 소비의 맥락에서 관찰된다. 위에서 논의했듯이 안서계곡을 포함한 중국 각처의 농자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중에서 개혁개방 이전에 태어난 대다수 중장년층과 노년층 고객들이 농자관 연회 테이블에 올려진 티에빙과 차이투완쯔 같은 특정 음식 항목을 이쿠판이라 부르며 과거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과거 사회주의 시절의 이쿠판이 해방 이전 구사회에서 경험한 고난의 삶을 체화된 기억의 형태로 호출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 새로운 버전의 이쿠판은 개혁개방 이전 사회주의적 과거를 호출하는 신체 감각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사실은 이쿠판을 통해 호출되는 사회주의적 과거가 한편으로 낭만화되고 이상화된 과거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배고프고 힘든 고난의 과거로서 뚜렷한 양가성과 이중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먼저 안서계곡뿐만 아니라 중국 각처의 현장연구에서 만난 농자리 관광객들은 이쿠판을 통해 호출된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을 이타적 환대와 인정미 넘치던 공동체적이고 진정성 있었던 과거로 회상하는 노스텔지어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북경의 한 국가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리엔(連) 씨(2025년 현재 72세)는 문화혁명 당시 요녕성(辽宁省)의 한 농촌 마을로 하방되어 약 2년 동안 생활한 적이 있는 “쯔칭스파이(知青世代, 이하 지청세대)”¹¹ 중국인이다. 그는 이쿠판을 통해 기억의 지평으로 호출된 자신의 하방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당시 우리는 너무나 가난했고 먹을 것도 부족했다. 심지어 이쿠판도 충분히 먹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너무 친절하고 진정성이 있게 대했다. 한마디로 인정미가 넘치는 시절이었다. …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누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음식을 많이 나누었다. 식량이 부족해서 모두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먹으라며 다투기도 했다. … 지금은 사람들이

¹¹ 지식청년세대(知识青年世代)의 줄임말.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다. ... 이 사회에 더 이상 인정은 남아 있지 않다.¹²

위 리엔 씨의 진술은 크게 두 가지 함의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그가 회상하는 개혁개방 이전 사회주의 시절은 환대와 인정미 넘치는 공동체적 삶의 과거이다. 이는 데이비드 서턴(David Sutton)이 그리스 칼림노스섬(Kalymnos island) 주민들 사이에서 발견한 “공동사회 내러티브(narratives of gemeinschaft)”와 유사한 담론의 체계로서, “과거를 음식이 무료로 교환되고 공동체 의례가 주민들의 삶에 더 큰 역할을 했던 시절로 상상”(Sutton, 2001: 54)하는 현상과 닮아있다. 이처럼 개혁개방 후 중국에서 상품화된 형태로 부활한 이쿠파는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을 “실제의 역사, 고품스러운, 혹은 문제시되는 사물이나 관념의 유래와 상관없이”(Robertson, 1994: 38) 낭만화되고 이상화된 환대와 공동체적 삶의 과거로 호출한다. 둘째, 리엔 씨는 노스텔지어적 시선을 통해 단순히 사회주의적 과거를 낭만화·이상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를 낭만화된 과거와 비교하며 오늘날 중국 사회에 만연한 환대의 부족과 인정의 메마름을 비판하고 있다.

양귀빈(Yang Guobin, 2003)은 문화혁명기에 농촌으로 하방되어 생활했던 지청 세대가 과거 자신이 살았던 농촌 마을과 농촌 생활에 대해 보여주는 노스텔지어, 즉 “쯔칭 노스텔지어(zhiching nostalgia)”를 현재 중국 사회에 대한 저항 혹은 비판의 한 징후로 해석한다. 이와 유사하게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리엔 씨의 노스텔지어는 아마도 개혁개방 후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 진정성, 인정이 급속하게 메말라가는 현재에 대한 암묵적 비판을 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이쿠파는 그 문자적 의미와 반대로 개혁개방 이전 사회주의적 과거를 긍정적으로 낭만화·이상화함으로써 개혁개방 후 시장사회주의 중국의 현재를 비판하는 “이티엔판(忆甜饭)”, 즉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밥’으로 기능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¹² 현장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와 좋은 친구가 되어 현재까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리엔씨는 나아가 들수록 이러한 노스텔지어적 정동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낭만화를 통한 현재 비판은 오늘날 중국인들이 이쿠파를 매개로 사회주의적 과거의 기억을 호출하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이쿠파의 소비 맥락에서 호출되는 사회주의적 과거를 낭만화된 과거와 정반대로 배고프고 힘들었던 부정적인 과거로 기억하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북경의 한 은행 간부로 일하는 관(官) 씨(2025년 현재 76세)는 천진에서 태어나 북경에서 대학을 다닌 엘리트로 대학 재학 중 산둥성(山东省)의 한 농촌 마을로 하방되었던 경험이 있다. 그는 하방 당시 농촌에서 먹었던 이쿠파를 “돼지도 먹기 싫어할” 정도로 맛있고 거친 음식으로 회상한다. 그는 농자판 연회 중 손에 쥘 차이투완쯔(菜团子)를 이쿠파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이 격양된 목소리로 열변을 토했다.

이건 부추와 계란으로 속을 채웠기 때문에 당연히 맛이 좋다. (하방된) 농촌 마을에서 우리가 이쿠파로 먹었던 차이투완쯔는 채소가 아니라 잡초 같은 걸로 속을 채웠고 재료로 사용된 옥수수도 진짜 옥수수가 아니라 통상 닭이나 돼지에게 사료로 먹이는 옥수수 기율이였다. 수백 번을 씹어도 물 없이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너무 맛이 없고 거칠어서 침도 잘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돼지도 먹기 싫어할 것이다. … 그때 참 고생 많이 했다(吃了好多苦). 나는 도시에서 태어나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멀고 낙후한 농촌 마을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 마을 주민 누구도 내가 고생하는 데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살아남는 문제만으로도 정신이 없었다. … 그들은 항상 상호 도움, 이타적 회생을 외쳤지만, 완전 헛소리에 불과했다(放屁一样). 그들은 손톱만큼의 인정도 없었다. … 아이고 말도 마라! 그때와 비교하면, 현재 우리는 황제처럼 살고 있다. 내가 내 소유의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현재 유일한 문제는 맛난 음식이 너무 많아서 끼니 때마다 뭘 먹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엔 씨 사례와 반대로, 관 씨가 이쿠파를 통해 회상하는 사회주의적 과거는 인민들에게 집체를 위한 자기희생, 금욕, 이타주의를 세뇌하고 강요했던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의 배고픔, 고난, 이기심이 만연했던 비참한 과거이다. 관 씨가 사회주의적 과거를 배고픔과 고난의 시절로 부정적으로 회상하는 것은, 이쿠파를 통해 인민들이 구사회를 부정적으로 기억하도록 함으로써 해방 후 사회주의 신중국을 정당화하고 미화했던 것처럼, 오늘날 시장사회주의 중국의 풍요로움을

재확인하고 정당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쿠스티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효과 때문에 최근 중국에서는 학교, 기업 혹은 정부 기관이 “애국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이쿠파를 준비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행사를 조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乔志峰, 2012; Qiu Xiaolong, 2012). 이러한 성격의 의례적 행사는 중국 각처의 현장연구 과정에서 조우한 단체 농자리 관광객들로부터도 종종 관찰되는 장면이었다.

한편, 이쿠파를 통해 사회주의적 과거를 회상하는 농자리 관광객 중에는 지청세대에 속하지 않거나 농촌 마을로 하방된 경험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들 지청세대가 아닌 중국인들 또한 이쿠파를 유년기에 먹었던 음식과 연결해서 사회주의적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보여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이쿠스티엔 집회가 농촌과 도시를 불문하고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조직되었던 정치적 대중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살았던 대다수 중국인이 유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아파두라이(Appadurai, 1996: 78)가 말하는 “안락의자 노스텔지어(*armchair nostalgia*)”, 즉 공간과 세대를 초월해서 특정인이 결코 경험한 적이 없었던 과거를 노스텔지어적 열망으로 호출하는 현상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¹³ 여하튼 흥미로운 사실은 지청세대와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과거를 양가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이다. 즉 그들 중 일부는 분명히 사회주의적 과거를 가난과 배고픔의 시절로 기억하고, 또 다른 일부는 “갈등과 긴장의 제거와 불편한 모순의 어루만짐을 통해 ‘과거’와 이전의 ‘자아’를 위로하는 서사를 생산하는”(Duruz, 1999: 237; Lupton, 1996) 방식으로 자신의 과거 혹은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사회주의적 과거를 허구적으로 구성해서 낭만적으로 기억하기도 한다.

이렇게 개혁개방 후 중국의 대중들이 이쿠파 음식경험을 통해 과거와 관계 맺는 방식은 일관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들이 상이한 경험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과거를 기억하는 모순적이면서도 양면적인 과정이다. 심지어 동일한 인물이 특정한 맥락에서 사회주의적 과거를 공동체적 가

¹³ 이러한 노스텔지어적 정동은 심지어 이쿠파를 유희적 소비의 대상으로 즐기는 중국의 MZ 세대들 사이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치와 진정성이 충만하던 시절로 낭만화·이상화하면서도 다른 맥락에서는 배고픔, 가난, 낙후성의 시절로 낙인화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위의 리엔 씨와 관 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과거를 일관적으로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회상하는 대신 대화의 맥락에 따라 명백하게 양면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오늘날 중국의 대중들이 사회주의적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에 내재하는 이와 같은 양면성은 기억하는 주체의 의식분열 징후일 수도 있고 정체성의 상황적·전략적 동원을 방증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 무엇을 의미하든 이 기억의 양면성은 농자리 관광의 장과 이쿠판의 소비 맥락을 훨씬 초월하는 중국의 정치적·문화적 지형과 공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개혁개방 후 중국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한 가장 가시적인 문화현상 중 하나는 아마도 노스텔지어 조류와 이른바 ‘레트로 열풍’일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이 이미 1990년대부터 관찰해 온 노스텔지어 조류는 북경, 상해, 심천을 위시한 대다수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문화적 경관을 휩쓸고 있다(O'Brian·Li 1999; Yang Guobin, 2003).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이나 1960~70년대 그리고 심지어 가장 최근의 과거인 80년대와 90년대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내용의 노스텔지어 출판물과 대중 문화상품들이 시내 서점가와 관광기념품점 진열대를 장악한 지 오래고, 지청세대의 노스텔지어 관광도 농자리 관광과 함께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 과거와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중국인들의 노스텔지어를 달래주며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홍색관광(红色旅游)”¹⁴의 유행으로 인해 중국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회주의 혁명 관련 유적지들이 상업적 관광 목적지로 변모하기도 했다(박충환, 2011). 이 외에도 수많은 식당, 바, 카페들이 1960~70년대 사회주의 시절의 오래된 소품이나 아이콘, 즉 “홍색” 문화콘텐츠로 내부를 장식하고, 심지어 문화혁명 당시의 노래, 춤, 복장, 무극(舞劇) 등 혁명과 홍색을 테마로 해서 성업하고 있는 고급스러운 “문혁테마식당(文革主题餐厅)” 혹은 더 최근에는 “홍색경전테마식당(红色经典主题餐厅)”도 눈에 띈다(Sohu, 2020/06/24).¹⁵

¹⁴ 중국인들에게 홍색은 상서로움의 상징이자 사회주의 혁명의 상징이다.

모더니티의 힘들, 즉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는 모든 익숙한 것들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 가공할 힘들에 의해 사라지거나 사라졌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노스텔지어적 열망을 낳는다 (Bauman, 1996; Berman, 1982; Lowenthal, 1985).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노스텔지어 조류는 1978년 시장지향적 개혁개방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가 수반하는 문화현상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40여 년에 걸쳐 중국에서 부상한 노스텔지어 조류는 여러 선진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해 온 과거의 낭만적 재발명이라는 일반적인 문화적 과정의 전형적인 징후이고 이쿠파의 새로운 부상은 이 징후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쿠파의 소비 맥락에서 드러나는 노스텔지어적 열망 그리고 현재 중국 사회 일반에서 관찰되는 노스텔지어 조류는 주체가 과거와 관계 맺는 방식에서 역설 혹은 이율배반을 수반하는 명백하게 양면적이고 양가적인 성격을 띠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턴이 칼립노스섬 주민들에게서 포착한 현상, 즉 “많은 이들이 과거의 ‘낙후한’ 위생 관행을 비웃으면서도 그것과 함께 사라진 사회 세계에 대해 탄식”(Sutton, 2001: 54)하는 양면적 태도와 겹친다. 이는 아마도 주체가 “현재의 지형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노스텔지어의 “형태, 의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Stewart, 1988: 227). 따라서 이쿠파의 소비자가 사회주의적 과거를 기억하는 데서 보여주는 양면성은 그들이 오늘날 중국 사회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지형에서 차지하는 상이한 위치의 함수가 된다. 하지만 이쿠파를 통해 환기되는 사회주의적 과거에 대한 기억은 “한 개인을 집단적 삶 속에 위치시켜 어떠한 개인적 기억도 사실상 사회 전체의 기억이 되는 그러한 유형의 통합적 기억”(Sutton, 2001: 61) 혹은 “집단기억”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기억의 사회적·집단적 차원은 개별 이쿠파 소비자의 노스텔지어 정동이 보여주는 과거에 대한 양면적 태도와 개혁개방 후 중국 사회 일반이 가까운 사회주의적 과거와 관계 맺는 방식 사이에 존재하는 유의미

15 “红色经典主题餐厅是如何火遍全国的?”, https://www.sohu.com/a/403986475_613239(검색일: 2024. 10. 2.).

한 공명 그리고 이를 관통하는 기억의 정치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개혁개방 후 중국 정부와 공산당 지도부는 이전 사회주의 체제와의 양면적·이중적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이 양면성은 이전의 사회주의적 정치체제는 대체로 유지한 채 경제 부문만 사회주의적 집단 생산·소비 체제 혹은 국가재분배 체제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개혁개방 후 중국은 체제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정통성 유지를 위해 이전 모택동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을 상속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역설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즉 오늘날 중국 정부와 공산당 지도부는 한편으로 개혁개방의 지속과 “중국몽” 실현의 가속화를 위해 과거 사회주의 국가재분배 체제를 경제적 비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정하고 차별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정통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이전 사회주의 체제와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그와 동일시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의 체제가 개혁개방 이전 사회주의적 과거와 관계 맺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양가성과 이중성은 시진핑 정권이 모택동 사상을 계승하는 방식과 최근의 모택동 숭배 현상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애국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장려하고 있는 홍색관광의 장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된다(박충환, 2011; 2025b).

요약하면, 오늘날 중국의 체제는 가까운 과거와의 역설적이고 양면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 거시적 차원의 양면성은 이쿠파 소비의 미시적장에서 표현되는 노스텔지어의 양면성이 예증하듯 중국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측면, 차원, 수준을 프렉탈처럼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청세대 노스텔지어를 단순히 현재에 대한 암묵적 비판으로 해석하는 양귀빈(Yang Guobin, 2003)의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의 농민들이 노스텔지어적 시선을 통해 이상화된 사회주의적 과거를 호출해서 현재 중국의 사회 문제, 즉 심각한 도농 불평등과 배금주의를 비판하는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오브라이언과 리(O'Brien·Li, 1999)의 “캠페인 노스텔지어(campaign nostalgia)”에 대한 연구도 오늘날 중국의 체제와 중국인들이 가까운 과거와 관계 맺는 방식에 내재하는 양면성과 이중성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사회주의적 과거를 낭만적으로 회상하는 동시에 배고픔,

고통, 정치적 통제, 강제된 금욕의 시대로도 기억한다. 사회주의 시절을 고난의 과거로 기억하는 행위는 모택동 체제의 유산을 정통성의 토대로 삼고 있는 현 중국의 체제에 위협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현재 중국의 풍요로움, 자유, 여가, 소비의 ‘달콤함’을 재확인해 주는 또 다른 형태의 이쿠스티엔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두 계열의 기억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이쿠파의 소비가 호출하는 사회주의적 과거에 대한 기억의 양면성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었다. 바로 이 지점이 개혁개방 후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이 가까운 사회주의적 과거의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경합하고 있는 기억의 정치의 장이다. 이쿠파의 담론과 실천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현상은 사회주의적 과거가 어떻게 기억되든 상관없이 대다수 이쿠파 식객들이 사치스럽고 과소비적인 형태의 연회를 통해 현재의 풍요가 제공하는 여흥과 쾌락을 만끽한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선행 연구(박충환, 2025a)에서 농자판을 둘러싼 녹색과 양생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여흥과 쾌락의 추구 또한 정치적으로 이중적인 의미, 즉 중국의 체제 재생산에 기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공간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IV. 나가며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음식을 하늘로 삼는다(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이 문구는 중국 삼국시대 오(吳)나라의 재상 육개(陸凱)가 마지막 황제 손호(孫皓)에게 올린 상소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중국의 수많은 고전 텍스트에서 변주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중국인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표현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격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이 문구는 음식과 음식 경험이 국가 권력의 근간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국 사회와 중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음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周勳, 2007; 趙化南, 2006; Anderson, 1988; Chang, 1977). 음식은 자명하고 명백한 일상성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 중국의 격언처럼, “음식은 그 평범성과 일상성의 외피 속에 강력한 의미와 구조를 숨길 수 있다”(Sutton, 2001: 3).

이상에서 광활한 중국 음식의 우주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쿠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담론과 실천을 기억의 정치라는 개념하에서 조명했다. 개혁개방 이전 모택동 치하 사회주의 시절의 이쿠파는 중국 공산당이 대중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주의적 주체로 호명하기 위해 조직했던 이쿠스티엔 정치집회의 장에서, 수쿠, 즉 고난에 대해 말하기를 통해 회상된 해방 이전 구체제하 중국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기억을 신체적 기억의 형태로 호출함으로써 강력한 환기효과를 발휘하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일부였다. 이렇게 독특한 역사성과 정치성을 가진 이쿠파는 모택동 사회주의 체제의 종언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개혁개방 후 중국의 자본주의적 시장관계를 통해 음식상품의 형태로 다시 출현해서 흥미로운 마들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버전의 이쿠파는 개혁개방 후 중국의 문화적 경관을 휩쓸고 있는 노스텔지어 조류와 맞물려 개혁개방 이전 모택동 사회주의 시절을 호출하는 신체 감각적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했다. 이를 기반으로 개혁개방 후 중국의 체제와 중국인들이 가까운 과거와 관계 맺는 방식에 내재하는 이율배반과 양면성 그리고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기억의 정치를 조명했다.

오늘날 이쿠파와 이쿠스티엔을 관통하는 서사전략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모택동 시절에 성장한 후 구미로 이민을 선택한 작가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유전되어, 그들이 모택동 치하 중국에서 겪었던 고난의 기억을 기록”(Guo Wu, 2014b: 267)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현 체제를 체제 외부에서 비판하거나 떠난 고향을 노스텔지어적 시선으로 회상하는 데 유용한 서사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해외 중국인은 자녀들에게 금욕과 근검절약의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이쿠파의 서사전략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중국 국내외의 상이한 사회문화적 경관에서 다양한 양태로 지속되고 있는 이쿠파는 유대인의 유월절 축제 음식인 “마짜(matzah)”를 연상시킨다. 마짜는 누룩을 넣지 않아 딱딱하고 거친 질감의 빵이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축제 1주일 동안 쓴 나물과 함께 마짜를 먹는 행위는 그들의 선조가 엑소더스 이전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유대인의 음식문화로 3,00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마짜와 유사하게, 중국의 사회주의 혁

명과 함께 출현해서 독특한 역사적·문화적·정치적 함의를 가지게 된 이쿠파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역사의 이면으로 사라지지 않고 중국 음식문화의 일부로 진화를 거듭하며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일 또한 흥미로울 것 같다.

투고일: 2026년 2월 13일 | 심사일: 2026년 3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6년 3월 31일

참고문헌

- 공봉진. 2019. “중국 ‘신시대 애국주의’에 관한 연구: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2(4): 109-145.
- 박충환. 2011. “홍색관광과 기억의 정치학: 개혁개방 후 중국, 가까운 과거와 관계 맺기.” 『현대중국연구』 13(1): 117-157.
- _____. 2025a. “농자판(农家饭), 도농 정체성, 그리고 양생: 중국판 시골밥의 문화적 다의성.” 『중국학』 92: 415-445.
- _____. 2025b. “모택동 주석의 영매: 중국의 종교적 전통과 주술의 정치.” 『중국학』 93: 485-515.
- 이희옥·백승욱. 2021.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서울: 책과함께.
- 조차현·나태중. 2011.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의 승리요인 분석: 마오쩌둥의 군사사상과 5사7계를 중심으로.” 『CHINA 연구』 10: 31-59.
- 乔志峰. 2012. “是‘忆苦思甜’还是‘忆甜思苦’.” 『中国文明网』, 8. 7. www.wenming.cn/wmpl_pd/shzt/201208/t20120807_792718.shtml(검색일: 2024. 3. 17.).
- 梁漱溟. 2011[1949]. 『中国文化要义』.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李里峰. 2007. “土改中的诉苦: 一种民众动员技术的微观分析.” 『南京大学学报-哲学·人文科学·社会科学』 二〇〇七年 第五期: 97-109.
- 师永刚·刘琼雄. 2006. 『雷锋 1940-1962』. 北京: 三联书店.
- 宋道雷. 2010. “土改中‘诉苦’运动的政治技术.” 『二十一世纪』 2010(4): 52-60.
- 赵化南. 2006. “‘劝廉宴’与‘忆苦饭’.” 『思想政治工作研究』 12: 194.
- 周勍. 2007. 『民以何食为天-中国食品安全现状调查』. 北京: 中国工人出版社.
- Anagnost, Ann S. 1997. “Making History Speak.” in *National Past-Times: Narrative,*

- Representation, and Power in Modern Chin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Anderson, E. N. 1988. *The Food of Chin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Appadurai, Arjun. 1981. "Gastro-politics in Hindu South Asia." *American Ethnologist* 8(3): 494-511.
- _____.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Ashley, Bob, J. Hollows, S. Jones and B. Taylor. 2004. *Food and Cultural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uman, Z. 1996. "From pilgrim to tourist: or a short history of identity." in Stuart Hall and Paul Du Gay (eds.).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London, Thousand Oaks, and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Berman, M. 1982. *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 The Experience of Modernity*. New York: Penguin Books.
- Chang, K. C. (ed.). 1977. *Food in Chinese Culture: Anthrop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Connerton, Paul. 1989. "Bodily practices." in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unihan, C. and P. V. Esterik. 1997. *Food and Culture: A Read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Duruz, J. 1999. "Food as nostalgia: eating the fifties and sixties." *Australian Historical Studies* 30(113): 231-250.
- Friedman, Edward, Paul G. Pickowicz, and Mark Seldon. 1991. *Chinese Village, Socialist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uo Wu. 2014a. "Speaking bitterness: Political education in land reform and military training under the CCP, 1947-1951." *The Chinese Historical Review* 21(1): 3-23.
- _____. 2014b. "Recalling Bitterness: Historiography, Memory, and Myth in Maoist China." *Twentieth-Century China* 39(3): 245-268.
- Halbwachs, Maurice. 1992. *On Collective Mem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ltzman, Jon D. 2006. "Food and Memor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5:

361-378.

- Johnson, Chalmers A. 1962.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37-1945*. Stanford University Press.
- Lowenthal, David. 1985.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pton, Deborah. 1996. *Food, the Body and the Self*. London: Sage Publications.
- Meisner, Maurice. 1999. "China's communist revolution: A half-century perspective." *Current History*, September: 243-248.
- Mintz, Sidney W. and Christine M. Du Bois. 2002. "The anthropology of food and eating."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 99-119.
- Mohan, Rajam. 2023. "Food and Culture: An Anthropologic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Review* 10(1): 479-484.
- O'Brien, Kevin J. and Lianjiang Li. 1999. "Campaign nostalgia in the Chinese countryside." *Asian Survey* 39(3): 375-393.
- Park Choong-Hwan. 2008. "Delights in Farm Guesthouses: Nongjiale Tourism, Rural Development, and the Regime of Leisure-pleasure in Post-Mao Chin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 Qiu Xiaolong. 2012. "Past-Bitterness-Recalling and Present-Sweetness-Recalling Meal." *World Literature Today* 86(1): 23-27.
- Robertson, Jennifer. 1994. *Native and Newcomer: Making and Remaking a Japanese C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tewart, Kathleen. 1988. "Nostalgia-a polemic." *Cultural Anthropology* 3(3): 227-241.
- Stoller P. 1995. *Embodying Colonial Memories*. New York: Routledge.
- Sutton, David E. 2001. *Remembrance of Repasts: An Anthropology of Food and Memory*. New York: Berg.
- Yang Guobin. 2003. "China's Zhiqing generation: nostalgia, identity, and cultural resistance in the 1990s." *Modern China* 29(3): 267-296.
- Yue Gang. 1999. *The Mouth that Begg: Hunger, Cannibalism and the Politics of Eating in Modern Chin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인터넷 자료

“忆苦思甜饭不仅是一道挺有意义的食物，经常吃对身体也不错!” <https://www.sohu.com>

com/a/729864103_121728927(검색일: 2025. 5. 3.).

“红色经典主题餐厅是如何火遍全国的?” https://www.sohu.com/a/403986475_613239
(검색일: 2024. 10. 2.). https://www.qdhhc.edu.cn/leifeng/p_detail.aspx?id=51239(검색일: 2024. 10. 2.).

Abstract

Yikufan and the politics of memory: Chinese people eat ‘Recalling Bitterness Meals’

Choong-Hwan Par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lluminates the cultural and political meanings of “*yikufan*” (忆苦饭), a unique food category meaning “recalling bitterness meals” in China. *Yikufan* refers to meals cooked from especially tasteless and coarse ingredients which the Chinese mass under the Maoist regime shared during the finale of the ultra-leftist political gathering called “*yikusitian*” (忆苦思甜) meaning “recalling bitterness and rethinking sweetness.” Without having disappeared with the 1978 market-oriented reforms, *yikufan* has reemerged in the vein of a nostalgic tide in the cultural landscape of the market-socialist China, consumed by the Chinese populace as a form of food commod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 terms of the politics of memory, the cultur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yikufan* in two historical periods, that of Maoist China and the period of market-socialist China. Firstly, it demonstrates that *yikufan*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interpellation of the Chinese masses as socialist subjects by examining highly politicized foods in the context of *yikusitian* political campaigns. Secondly, by illuminating the commodity version of *yikufan* in the context of the nostalgic cultural tide in post-reform China, the study reveals the paradoxical ambivalence of how the Chinese regime and the people relate to their near past, i.e., to Maoist China, and interprets the corresponding political and cultural implications.

Key words | *Yikufan*, *Yikusitian*, Politics of Memory, Socialist Subjects, Nostalgia